

## 흘려야 하는 세 가지(3): 사랑과 희생의 피

### ■ 본문

마 26:26-30

### ■ 시작 찬송가

90, 250, 303장  
(통 98, 182, 403장)

### ■ 헌금 찬송가

254, 266, 423장  
(통 186, 200, 213장)

### ▶ 피

#### 1. 예수님의 피는?

- 1) 언약의 피  
(마 26:28)
- 2) 음료의 피  
(요 6:55)
- 3) 교회를 사신 피  
(행 20:28)
- 4) 의롭게 하는 피  
(롬 5:9)
- 5) 구속하는 피  
(엡 2:13)
- 6) 화평을 이루는 피  
(골 1:20)
- 7) 거룩하게 하는 피  
(히 13:12)
- 8)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  
(요일 1:7)
- 9) 죄에서 해방시키는 피  
(계 1:5)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피흘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과 희생의 피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진득한 땀,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땀을 흘리고, 고통 중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엡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 희생의 피, 새 언약의 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등의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제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의 피였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희생제물의 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새 언약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 예수님께서 흘리신 세가지 피

#### 1)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흘리신 이 땀은 우리가 흘리는 일반적인 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피 같은 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땀은 피처럼 느껴지는 진득한 땀이었습니다.

눅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 2)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을 때 반드시 먼저 채찍으로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으로 맞으셨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플라그룸” 혹은, “플라젤룸”이라고 불리는 이 채찍은 일반 채찍과 다릅니다. 손잡이가 단단하고, 짧은 가죽줄이 여러 갈래로 나뉘져 있고, 그 갈래 끝에는 날카롭게 조각난 양 뼈나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으면, 채찍에 걸리는 모든 살 조각이 떨어져나가는 가장 잔인하고, 아픈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요 19: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또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다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머리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참으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덮여서 십자가 현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 19:2-3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 3)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셨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실제로도 많은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피를 흘려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스스로 점점 숨이 막혀 죽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매달린 사람은 점점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처지게 되는데, 처질수록 자기의 가슴이 눌러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곳에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19: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 언약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유월절 참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이고, 언약의 피입니다.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 뜻, 계획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도 항상 언약에 기초하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  
엡 2:13-14 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피는 잘 흘러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중심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피를 흘려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하며 희생하는 피 흘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의 한마디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피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됩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2. 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를 위하여
3.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선교지를 위하여
4.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국내·기관 선교를 위하여
5.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6. 탈북자, 이주노동자,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 2. 예수님의 피를 마신자의 결과

- 1)영생을 가짐  
(요 6:54)
- 2)예수님 안에 거함  
(요 6:56)
- 3)사죄를 받음  
(엡 2:13)
- 4)성소에 들어감  
(히 10:19)